

식물 키우며 심신 안정... 정읍 고위험 직군 원예 치유

농기센터, 소방관·간호사 등 대상 건강 회복 돕기 프로그램
다음달 12일까지 총 8회...수경재배·텃밭 만들기 등 치유 농업

“원예 치유 프로그램으로 마음의 안정 찾으세요.”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소방관들과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화재 현장에서 화마와 싸우고 24시간 출동대기 하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고위험 직군인 소방관과 보건소 직원들은 직업 특성상 일반인보다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나 각종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고위험 직군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은 오는 5월12일까지 총 8회 진행된다.
교육 내용으로는 치유농업의 이해 등 이론수업과 식물을 활용한 치유기법 실습 교육, 나 자신을 알아보고 타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수경재배와 허브 삼목, 반려 식물, 채소를 활용한 텃밭 정원 만들기 등 식물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동을 실습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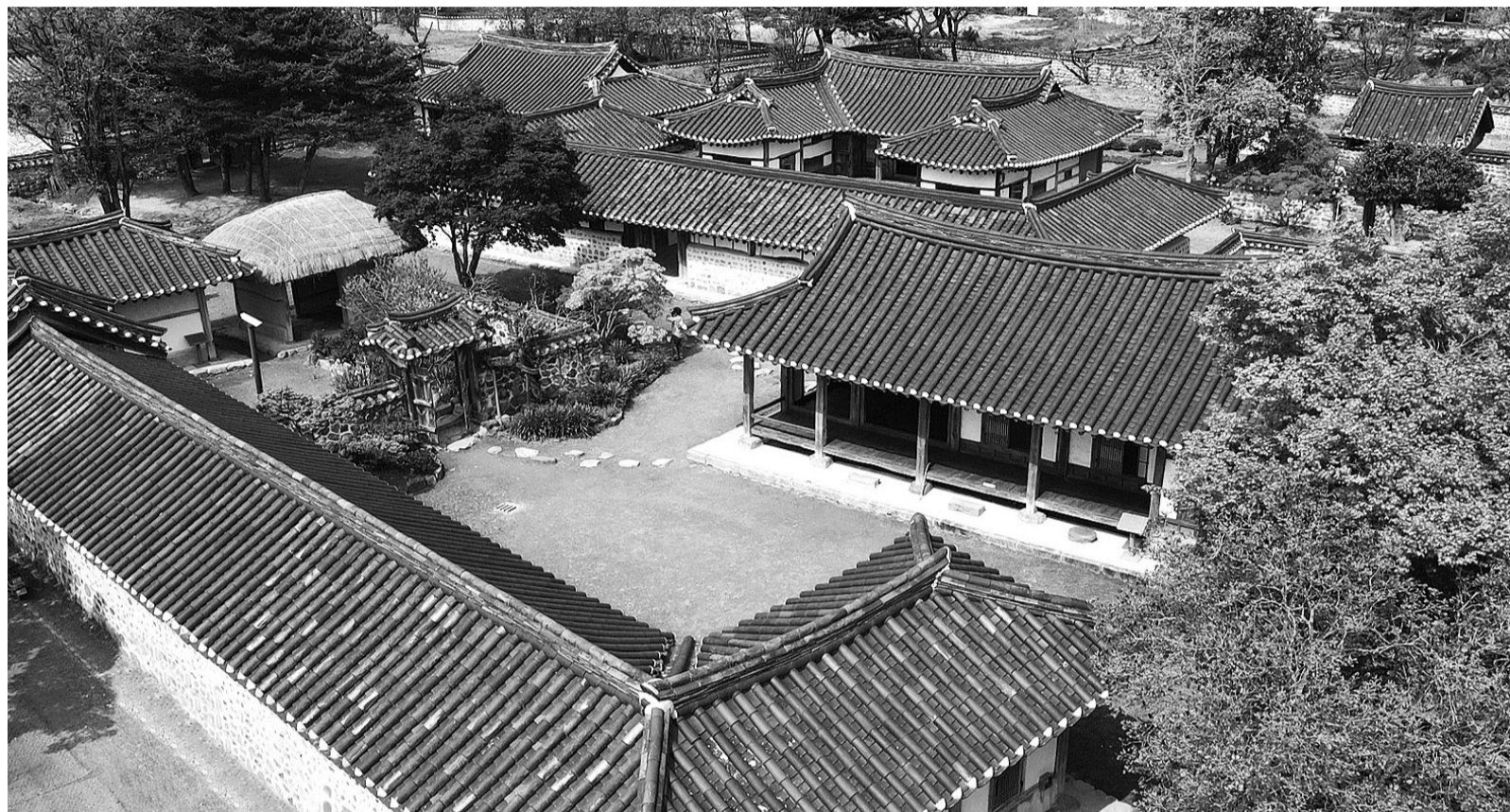
? 치유농업(Agro-Healing)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된 영농체험 활동으로 인간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농업으로 최근 들어 정신적·심리적 치유 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정기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치유농업은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감으로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치유농업 서비스를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소방관들과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위험 직군 힐링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읍농업기술센터 제공)



아흔아홉칸 고택에 앉은 ‘봄’ 239년의 오랜 세월을 품은 김명관 고택의 안쪽에 영산홍과 금낭화, 동백꽃, 자목련 등 봄이 그윽하게 내려앉았다. 뒷마루에 앉아서 문밖으로 바라보이는 풍경은 한쪽의 한국화를 보는 듯 아름답다. 김명관 고택은 국가민속문화재 제26호로, 1784년 정조 8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옥 주택이다. 일명 아흔아홉 칸의 집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청하산을 배경으로 앞에는 동진강 상류의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풍수지리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정읍시 제공)

고창 농번기 인건비 상승 억제 ‘상생 결의’

직업소개소도 걱정 인건비 약속...농업인 부담 경감

고창군이 농촌현장의 과도한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려는 의지로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 결의대회를 열었다.

고창군은 심택섭 군수와 임정호 군의장을 비롯해 농협 고창군지부장과 지역농협 조합장, 전국일자리협회 고창군지부 대표, 농업인단체장, 이장단 협의회장, 농업인 등이 함께한 가운데 ‘농업근로자 인건비 상승억제 및 안정화를 위한 상생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농업인은 웃돈을 주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직업소개소 역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인건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적정인건비로 인력을 공급하는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

군과 농협 등 유관기관에서는 적정한 농업근로자 인건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군민 참신한 아이디어 정책에 반영

9월까지 규제 개혁 방안 등 접수

고창군이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2023년 고창 군민 참여 정책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복지공동체 실현 방안,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혁 방안 등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군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오는 9월30일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고창군 홈페이지

페이지 내 참여마당과 국민신문고, 우편, 방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제안 소관부서 및 주무부서의 협의를 통해 검토되고 2차 제안심사실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 제안 중 군민 제안은 군수 표창과 부상금을, 공무원 제안은 인사상 인센티브와 표상금을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8개 농축협, 농업발전 방안 모색

실무추진위원회의, 품목별 특화작물 지정·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정읍시와 농협 정읍시지부를 비롯한 8개 지역 농축협이 지역 농업발전과 공동 상생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읍시는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내 농축협과 2023년(2024년도 예산분) 지자체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실무추진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과 각 농축협이 상호 협력을 강

화해 지역농업 발전을 꾀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농축협 관계자와 농업기술센터 농업 실무부서 직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농업·농촌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별, 농협별, 품목별 특화작물 지정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또 소비자들이 인상, 농업 생산경비 증가로 인한 농업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회성 보조사업은 지양하고, 특화 품목 지정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별 농협 재원 부담을 10% 이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발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정기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자체-농축협 간의 협력사업을 통해 정읍의 농업, 농촌, 농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주도적인 농업행정 추진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읍 농업발전을 위해 시와 농축협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자전거 보험 최대 1000만원 보장

남원시가 모든 시민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남원시민 자전거보험’ 보장을 확대 시행한다.

이 보험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험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

고 중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다.

보장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기존 500만원)이며, 상해 진단위로금은 20만 원부터 60만원까지 보장된다.

이 외에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절판 판매 중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

문이당 | 15,000원